

# 영암군, 외국인계절근로자 하루 고용도 가능해진다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 내년부터 '일당제 인력 파견' 시행 지역 상황 감안 노동력 공급 조율 군, "농사 현장과 소통해 정책 마련"

영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동안 고용할 길이 열린다.

일당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재적소에 노동력이 배치돼 농가 일손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 농가에 이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4일 영암 금정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계절근로자와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다.

이는 개별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1:1로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농가에서만 일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농가는 꼭 필요한 시간에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협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노동력 공급 계획을 조율할 수 있어 농촌 일손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금정농협과 제도 시행을 잘 준비해서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 농사 현장과 늘 소통하며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최근 영암군이 필리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맺었다. 영암군 제공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영암군 총인구 5만 2363명 대비 외국인 근로자 인구는

6664명(12.7%)으로 추산되며 최근 코로나19 규제 완화와 조선업 호황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세를 띠고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공로 등

목포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5대 기본 목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등이다.

시는 1차 필수평가 지표 중 전담인력 구성,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여부에서 고득점을 얻었으며 2차 선택평가 지표 중에서는 목포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 안전모니터링 및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시민참여단의 행정 및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지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에 대한 점수도 포함된다.

시는 2025년도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2시간 연장할 계획으로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따른 목포시장의 의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오는 12월19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얻는다. 목포-정기찬 기자

## 해남군, 산불 방지 총력 불법소각 감시 등 경각심 강화

해남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은 오는 12월15일까지로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산불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오일장 등을 방문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 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무인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 펌프 등의 점검을 완료했다.

개인진화장비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 지속가능 신안 정원도시 포럼 개최 내일 자은도 라마다호텔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와 정원도시로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가능 신안 정원도시 포럼'이 열린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정원도시로서의 신안이 지닌 섬과 자연·생태경관, 문화경관을 활용해 정원문화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원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신안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학회가 주관하며 정원과 생태 전문가 및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정원도시 정책 및 계획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포럼을 통해 정원 도시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정원문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포럼의 주제는 '지방소멸 대응 및 정원도시 방안 모색'으로 설정됐으며 정원과 도시 생태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발표자로는 정남철 까치골레옹바이오 대표,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진흥실장, 송명준 경기도 양평 세미원 대표이사, 최영은 한국식생학회부설 하천습지식생 연구소장이 참가해 신안군의 정원도시 가능성과 함께 생태적 지속 가능성 및 정원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김장환 한국식생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포럼을 이끌고 유명한 한국생태학회 회장, 김준선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명예교수, 김종호남도정원연구소 소장이 참여해 정원도시로서의 신안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원문화는 단순한 도시 미관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신안 정원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 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HD현대삼호 기직장협의회원들이 무안군 청계면의 한 감농가를 찾아 감 따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 HD현대삼호 기직장협의회, 무안군 감 농가 일손돕기

HD현대삼호 기직장협의회가 지난 17일 전경석 상무, 서정훈 수석을 비롯한 회원 30명과 함께 무안군 청계면 소재 감 농가 2곳을 방문해 감 따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감 따기 봉사활동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회원들은 총 3000평 규모 농장 2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감 수확을 했고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감 30박스도 함께 구입했다.

박길배 기직장협 회장은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나왔지만 다 같이 웃으며

서 즐겁게 활동에 임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 기직장협의회는 HD현대삼호에 근무하는 직원 5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단 이래 20여 년간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 생필품 지원, 지역농가 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무안-김행연 기자

## 영암군, 남도 역사문화 중심지로 발돋움

###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 도비 180억...구립관광지 탈바꿈

영암군이 지난 18일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원을 확보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총 300억원 규모의 '전남의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글로벌 시대의 영암 헤리티지 재도약 프로젝트'를 공모에 제출해 여수시, 장성군, 화순군과 함께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 평가에서는 전통문화유산 중심지로 한 남도 문화관광 르네상스 실현 의지, 영암군-영암문화관광재단-혁신위원회 민관 거버넌스 협업 등 영암군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영암군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다양한 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소통하며 최적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의 대대적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자원 활용의 진부함과 연계성 부족으로 문화관광 트렌드에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던 구립관광지를 새롭게 바꿀 기회로 보고 이번 선정을 소식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

다. 영암군은 향후 호남 3대 명촌 구림마을과 구립관광지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남도 역사문화의 중심지 영암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

다. 구체적으로는 2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구림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왕인박사, 도기, 한옥 등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영암의 멋(전통건축·목공)과 맛(전통음식·술), 흥(전통문화·축제·행사)이 어우러지는 헤리티지 리노베이션(Heritage Renovation)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왕인문화축제와 월출산국화축제, 국립공원박람회, 한옥문화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부터 달빛페스티벌과 캠핑관광축제, 반려동물문화축제, 마을축제 등 지역축제까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영암군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